

# 눈보라 강추위에도 '으샤!' 13차 촛불집회, “재벌 책임 묻고, 재벌공화국 해체해야”

박성식 | 승인 2017.01.21 19:31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 민중대회 열고 2/25일 민중총궐기 선포



설 명절을 앞둔 21일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13차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이 열리고 30만여 명의 시민들이 눈보라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가득 매우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주말, 눈보라와 강추위가 몰아쳐도 광화문광장 촛불은 거대했다. 퇴진행동은 오늘 13차 촛불집회 명칭을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로 발표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그밖에도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행체제로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황교안의 사퇴를 요구하고, 재벌공화국 헬조선을 바꾸자며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촛불집회 전체 요구를 밝히는 기조 발언에 나섰다. 그는 “촛불은 추위를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는 매화꽃”이라며 “재벌범죄의 책임을 묻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진정한 촛불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문화계, 중소기업, 환경단체, 여성비정규직노동자 등도 무대에 올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힙합그룹 피타임이 공연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 후 청운동과 헌재, 재벌사가 있는 도심 등 세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청와대와 헌재 앞에서는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여 박근혜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설 연휴기간 촛불집회는 한 주를 쉬고 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2월 25일에는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 촛불집회를 열어낸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이를 선포하는 취지로 노동자-농민-빈민 등의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촛불집회 본 대회에 앞서 16시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민중대회에는 전농, 백남기투쟁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건설노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투쟁발언을 이어갔고, 주요 단체 대표자들이 2017년 민중총궐기 선포문을 발표했다. 선포문을 통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광장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가 여전히 거부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올해 2017년을 촛불항쟁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늘 13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도 개최됐다. 한편 한 시민은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찍부터 눈이 쌓인 광화문광장을 홀로 치우기도해 주변 시민들이 거들고 나서는 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이 열리기 앞서 2017년 민중총궐기 선포대회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이 열리기 앞서 2017년 민중총궐기 선포대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2017년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이 열리기 앞서 2017년 민중총궐기 선포대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강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 국민행동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강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 국민행동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 광장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에 눈덩이를 던진 자국이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함박눈이 내리고 눈이 광화문 광장에 많이 쌓인 가운데 한 촛불집회 참가자 어린이가 눈사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7년 민중총궐기 선포대회를 마친 후 시민 사전발언대가 열린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라 국회를 향해 '18세 선거권'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문화예술가들이 광화문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내린 조의연 판사에게 눈을 뜨라는 풍자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함께 몸짓공연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30만여 명의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탄핵", "부역자 청산" 등을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무대에 올라 촛불집회 기초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광장에서 노란리본을 만들며 연대하고 있는 '노란리본공작소' 회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이름이 담긴 로고젝트 조명을 비추며 행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3차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청와대 앞에 도착한 13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등 부역자들의 얼굴이 붙여진 박을 터뜨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청와대를 향해 규탄의 함성과 나팔을 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 건설노동자 투쟁실천단'이 나팔차 150여 대를 일거에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21일 전경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민중대회와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길목을 막았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 건설노동자 투쟁실천단'이 나팔차 150여 대를 일거에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21일 전경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민중대회와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길목을 막았다. © 변백선 기자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mailto:kctuspeech@hanmail.net)